

no. 672

HYANGJANG

향장

SKIN, BACK in RHYTHM



설화수 글로벌 앰배서더 임윤아



향장

no. 672

www.apgroup.com
hyangjang@hll.co.kr
copyright 2026 amorepacific

〈향장〉은 www.apgroup.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전국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는 매거진입니다.

발행일 2026년 10월 1일
발행 통권 672호
발행인 김승환
편집인 김중빈
발행 (주)아모레퍼시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제품 문의 080-023-5454
제작 문의 뉴커머스 콘텐츠팀
인쇄 세종씨앤피(주) 02-467-5041
인쇄인 나경록
기획·편집 HLL중앙
디렉터 박소은
디자인 전은경



SPECIAL

SKIN, BACK in RHYTHM

- 04 TREND 피부의 미래를 결정하는 세포의 힘
- 08 STORY REBUILDING SKIN: 가을 피부를 위한 5단계 리빌딩
- 20 MAKEUP 차분한 색을 겹쳐 완성한 가을의 깊이

since 1958

<향장>은 1958년 '화장계'라는 이름으로 창간한 이후 현재까지 69년간 672호를 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뷰티 매거진입니다.

13



PRODUCT

- 28 FOCUS 피부가 필요한 순간을 채우는 홀리추얼 루틴
- 34 SPOTLIGHT 섬세한 터치가 필요한 아이 케어
- 38 NEW & PICK 진화된 홈 케어의 끝, 써마리프트
- 42 NEW & PICK 밤사이 경험하는 피부 변화, 헤라 인텐시브 퍼밍 리페어 밤
- 44 NEW & PICK 리페어 에너지를 깨우는 설화수 자음생앰플마스크

46



LIFE & WELLNESS

- 48 INNER BEAUTY 건강하게 나이 드는 습관, 바이탈뷰티
- 52 HAIR 가을 탈모에서 벗어나는 데일리 헤어 케어
- 54 ROUTINE 피부를 탄탄하게 세우는 블루 PDRN 3STEP
- 56 NEWS 한 잔의 차가 되기까지, 제주 티라이브러리
- 58 EDITOR'S PICK 두 에디터가 선택한 가을 필수 뷰티 아이템

22



SPECIAL TREND



시간이 흘러도, 나다운 리듬으로.
editor PARK SO EUN photograph YANG KYUNG JOON

SKIN, BACK in RHYTHM

시간이 지나도 멋있는 사람이 있다. 세월의 흔적을 애써 감추지 않아도 생기가 있고,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자신만의 분위기가 선명해지는 사람. 피부도 꼭 시간을 거슬러야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최근 에이징 케어의 관심은 얼마나 젊어 보이는가보다 피부가 얼마나 오랫동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제 기능을 이어갈 수 있는지로 옮겨가고 있다. 그리고 그 흐름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키워드가 Cell Reset과 Rejuvenation이다.

Cell Reset은 말 그대로 흐트러진 피부 컨디션을 건강한 상태로 다시 정비하는 개념에 가깝다. 피부는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오래된 세포를 밀어내며, 손상된 장벽을 회복하고 스스로 균형을 조절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자외선과 열, 산화 스트레스 같은 자극이 반복될수록 이 자연스러운 리듬은 조금씩 흐트러진다. 이때 단순히 부족한 것을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피부가 다시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Cell Reset의 출발점이다. Rejuvenation은 그렇게 정돈된 피부가 활력과 회복력을 유지하며 건강한 상태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다. 피부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흘러갈 시간을 위해 지금의 피부 리듬을 건강하게 설계하는 것. 시간이 더해질수록 자신만의 분위기가 깊어지는 얼굴처럼 피부의 아름다움 역시 하나의 순간에 머물지 않는다. 매일의 회복과 재생이 쌓여 오늘의 피부가 되고, 다시 내일의 피부를 만든다. 어쩌면 우리가 오래 간직하고 싶은 것은 젊음보다 시간이 흘러도 잃고 싶지 않은 나만의 리듬이 아닐까.



INSIDE THE CELL

피부 시간을 결정하는 가장 작은 단위, 세포 안을 들여다볼 시간.

editor **PARK SO EUN** photograph **CHOI SEUNG HYUK**

피부 노화를 이야기할 때 이제 주름과 탄력만 들여다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보다 훨씬 작은 단위인 '세포'를 살펴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 피부 세포 역시 매일 자외선과 열, 스트레스 같은 크고 작은 자극을 받으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활성산소가 생겨난다.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이지만 필요 이상으로 많으면 피부 세포에 부담을 주고, 이러한 상태가 반복될수록 피부는 쉽게 지치며 예전보다 회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진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항산화다. 과도한 활성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을 줄이는 과정으로, 비타민 C와 E처럼 익숙한 항산화 성분이 오랫동안 스킨케어에 활용되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제 관심은 보호에만 머물지 않는다.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고 손상에서 회복하며 새로운 세포로 자연스럽게 교체되는 과정까지 함께 살피는 것. 눈에 보이는 피부의 활력을 보다 근본적인 단계에서 들여다보려는 시선이 여기에서 출발한다.

흔히 우리가 거울 속에서 발견하는 피부 변화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결과만은 아니다. 눈에 보이기 전부터 작은 세포 안에서는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차곡차곡 쌓인다. 세포가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고 제 기능을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 이것이 세포 단위의 에이징 케어에 주목하는 이유다. 이미 생긴 주름을 없애고 탄력을 채우는 것만큼 그 시작점인 세포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일도 중요해졌다. 눈에 보이는 변화 너머, 피부의 시간을 결정하는 단서는 어쩌면 더 작고 깊은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REBUILDING SKIN

여름의 흔적을 비우고, 흐트러진 피부 컨디션을 다시 세울 시간.

editor **PARK SO EUN** photograph **YANG KYUNG JOON**

평소처럼 바른 파운데이션이 유난히 들뜨고 손끝에 닿는 피부가 까슬하게 느껴진다. 오후만 되면 볼과 입가가 땅기고, 늘 쓰던 화장품에도 피부가 평소보다 예민하게 반응한다. 가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피부 변화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지고 습도가 빠르게 낮아지는 환절기에는 피부의 수분 균형이 흐트러지고 장벽 역시 불안정해지기 쉽다. 여기에 여름 동안 쌓인 자외선과 열 자극의 흔적까지 남아 있다면 문제는 단순한 건조함에 그치지 않는다. 피부 표면의 변화뿐 아니라 세포의 회복과 재생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는 환경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다. 겉으로 드러난 작은 변화들은 지금 피부 컨디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건조하면 수분을 채우고, 예민하면 진정시키는 식의 단편적인 대응보다 피부 컨디션을 단계적으로 다시 세우는 일이다. 먼저 여름을 지나온 피부에 어떤 변화가 남았는지 살피고, 지친 세포의 활력을 끌어올려 피부가 회복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든다. 이어 재생을 위한 환경을 갖추고 장벽과 유수분 균형을 탄탄하게 다져 피부를 안정시킨 뒤, 보습과 탄력 케어의 밀도를 높여 다가올 겨울까지 준비할 것. 지금 필요한 건 하나를 더하는 관리보다, 피부가 다시 스스로 힘을 찾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기반을 다지는 일이다.

STEP 1

DAMAGE
CHECK

STEP 2

CELL RESET

STEP 3

REJUVENATION

STEP 4

SKIN
STABILIZE

STEP 5

LONGEVITY
CARE





STEP 1

DAMAGE CHECK

여름이 남긴 피부 손상을 확인하는 단계

본격적인 케어에 앞서 지금 피부가 어떤 상태인지부터 살펴볼 것. 여름 내내 자외선과 열에 노출된 피부는 수분 균형이 흐트러지고 장벽이 약해지는가 하면, 붉은 기나 거친 피부결처럼 눈에 보이는 흔적을 남기기도 한다. 여기에 건조한 환경까지 겹치면 평소와 같은 스킨케어에도 피부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건 무작정 새로운 기능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피부의 수분과 장벽 상태를 확인하고, 여름을 보낸 뒤 남은 자극의 흔적을 차분히 정돈하는 것. 눈에 보이는 변화와 피부 컨디션을 세심하게 체크해 앞으로 이어질 케어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피부를 다시 정비하는 첫 단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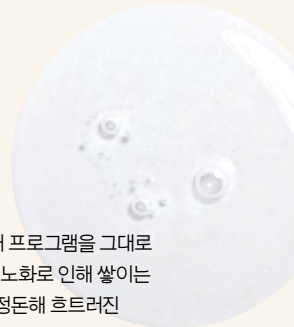


눈으로만 가늠하기 어려운 피부 컨디션을 직접 측정하는 홀 뷰티 디바이스. 경피 수분 손실량과 피부 수분 전도도를 측정해 장벽과 수분 상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맞춰 최적의 관리 모드를 자동으로 추천한다.

메이크온 써마리프트 80만원대.

에스테틱 효소 트리트먼트를 간편하게 경험할 수 있는 크림 타입 워시오프 마스크. 단 1회 사용만으로 피부 컨디션을 저하시키는 여섯 가지 고민을 개선해 맑고 매끈한 피부로 가꿔준다.

홀리추얼 블루 PDRN 리셋 마스크 100ml 4만8천원.



1 에스테틱 리페어 프로그램을 그대로 담은 PDRN 앰플. 노화로 인해 쌓이는 불필요한 각질을 정돈해 흐트러진 턴오버를 개선하고, 탄력, 장벽 저하 등 노화의 흔적을 집중 케어해 지친 피부 컨디션을 빠르게 되찾아준다.

홀리추얼 블루 PDRN 더블 앰플 45ml
9만5천원.

2 PDRN과 히알루론산을 중심으로 피부에 물광과 탄력을 촘촘하게 채우는 고기능 세럼. 유효 성분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술을 적용해 피부 속까지 수분감을 채우고, 탄탄하고 매끄러운 피부 컨디션으로 끌어올린다.

아모레퍼시픽 클리니컬 레스폰스 트리플 샷 세럼 40ml 11만5천원.

STEP 2

CELL RESET

지친 피부 세포의 활력을 깨우는 단계

피부를 정돈했다면 이제 케어의 초점을 세포 단위로 옮길 차례다. 피부는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오래된 세포를 밀어내며 스스로 회복하지만, 노화와 반복되는 외부 자극은 이러한 흐름을 더디게 만든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무작정 채우기보다 세포가 원활하게 제 기능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피부 회복과 턴오버에 주목한 PDRN과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는 히알루론산 등을 활용해 지친 피부의 활력을 끌어올리고, 다음 단계의 재생 케어를 위한 바탕을 만든다. 피부가 다시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깊은 안쪽 컨디션부터 깨우는 것이 Cell Reset의 핵심이다.





AMORE PACIFIC

CLINICAL RESPONSE

Triple Shot Serum
Sérum à triple action



STEP 3

REJUVENATION

피부 재생 흐름을 끌어올리는 단계

세포의 활력을 깨웠다면 이제 그 힘이 눈에 보이는 피부 변화로 이어지도록 본격적인 재생 케어를 할 차례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턴오버는 느려지고, 탄력과 광채는 떨어지며 주름이나 모공 같은 노화 징후도 보다 선명해진다. 이 단계에서는 피부가 스스로 새로운 상태로 전환되는 흐름을 돕는 동시에, 탄력과 주름, 광채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를 함께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레티놀처럼 턴오버와 탄력 개선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성분부터 피부 깊은 곳의 에너지와 장벽까지 함께 케어하는 고기능 세럼, 피부 주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설계된 집중 프로그램까지. 피부가 다시 탄탄하고 생기 있게 차올라 수 있도록 재생의 흐름을 촘촘하게 이어가는 단계다.

1



1 화이트 까멜리아 EXO™와 듀얼 일루미네이팅 캡슐 포뮬러가 피부 속 에너지를 깨우고, 탄력과 광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세럼. 피부 깊은 곳부터 탄력을 채우고 장벽까지 강화해 맑고 탄탄한 피부로 가꿔준다.

헤라 시그니아 일루미네이팅 세럼 30ml 20만원.

2



2 순수 레티놀 0.1%와 부스팅 펩타이드 카르노신을 담아 묵은 각질의 턴오버를 촉진하고, 느슨해진 모공 주변 탄력과 깊은 주름을 집중 관리하는 세럼. 모공, 주름, 탄력, 광채, 피부결을 폭넓게 개선하고 피부 치밀도와 장벽까지 함께 케어한다.

헤라 레티놀 3X 리프팅 세럼 기획 세트 11만원.

3



3 피부 턴오버 주기에 맞춰 4주 동안 정화, 활성, 집중, 강화의 네 단계로 사용하는 집중 트리트먼트. 각질 정돈을 시작으로 피부 콜라겐 리뉴얼, 깊은 영양과 리프팅, 탄력과 윤곽, 광채 강화까지 순차적으로 설계해 피부의 재생 흐름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린다.

설화수 진설 인퓨전 트리트먼트 15ml×4ea 68만원.

STEP 4

SKIN STABILIZE

수분을 붙잡고 피부의 힘을 탄탄하게 다지는 단계

피부 컨디션을 충분히 끌어올렸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상태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다. 기온과 습도가 떨어지는 가을에는 피부 속 수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장벽이 약해지면서, 공들여 채운 수분과 탄력 역시 쉽게 무너지기 마련. 이때는 단순히 보습을 더하는 것보다 피부 안에 채워진 수분과 영양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장벽을 탄탄하게 다지고, 피부 밀도와 균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케어가 필요하다. 앞선 단계에서 끌어올린 피부의 힘을 단단히 붙잡아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것. 다음 계절까지 건강한 컨디션을 이어가기 위한 안정화 단계다.



1 AP 단독 히알루론산과 고순도 PDRN에 엑소좀을 더해 앞선 케어에서 끌어올린 피부 컨디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고기능 크림. 피부를 무겁게 덮기보다 안쪽의 밀도와 탄력 균형을 탄탄하게 잡아 매끄럽고 힘 있는 피부로 완성한다. **아모레퍼시픽** 클리니컬 레스폰스 트리플 샷 크림 50ml 13만5천원.

2 피부장벽강화에 도움을 주는 피토스테롤 리페어 이펙트™를 담아 건조한 환경에 약해진 피부를 편안하게 다지는 보습 크림. 피부 속부터 촉촉하게 수분을 채우고, 100시간 지속되는 보습력으로 수분 손실을 막아 오랫동안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 50ml 4만1천원





항산화 효과와 함께 피부 탄력 인자를
활성화하는 탄력지선체™를 담아
시간이 지나며 느슨해지는 피부의
힘을 탄탄하게 끌어올리는 영양 크림.
진정, 보습, 장벽을 함께 케어하는
자음단®에 영양호중수와 트리플
오메가 오일을 더해 깊은 보습과
영양을 채우고, 얼굴부터 턱선, 목까지
탄력 있게 가꿔 건강한 피부 컨디션을
오래 유지하도록 돕는다.

설화수 탄력영양크림 이엑스 75ml
13만5천원.

STEP 5

LONGEVITY CARE

건강한 피부의 힘을 오래 이어가는 단계

피부 컨디션을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다졌다면 마지막은 그 힘을 얼마나 오래 이어갈 수 있는지에 집중할 차례다. 늦가을부터 차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 피부는 수분과 영양을 빠르게 잃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푸석함이나 잔주름도 쉽게 눈에 띈다. 이때는 부족한 것을 그때그때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피부가 외부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며 탄력과 항산화 케어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의 변화를 빠르게 만드는 것보다 시간이 지나도 탄탄하고 건강한 피부 상태를 유지하는 것. 지금까지 쌓아온 케어를 다음 계절, 그리고 그 이후까지 이어가는 것이 롱제비티 케어의 마지막 목표다.



홀리추얼 리페어 리추얼의 완성을 담은 PDRN 크림. 홀리추얼만의 독자 성분 Blue PDRN™과 4배 더 강력한 리페어 시너지를 내는 Blue Beta Glucan™이 함유된 크림으로 복합 노화와 외부 자극으로 저하된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려 다양한 노화 흔적*을 빠르게 개선해준다.

*탄력, 장벽 저하 등의 노화 징후

홀리추얼 블루 PDRN 리커버리 크림
50ml 11만5천원.



SPECIAL MAKEUP



SHADES OF AUTUMN

차분한 색을 겹쳐 완성한 가을의 깊이.

editor PARK SO EUN photograph YANG KYUNG JOON

가을이 오면 유난히 손이 가는 색이 있다. 깊어진 브라운, 부드러운 베이지, 한 톤 가라앉은 로즈와 은근한 온기를 머금은 브론즈. 선명하게 드러내기보다 여러 번 겹칠수록 깊이를 더하고, 피부 위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때 더욱 매력적인 컬러들이다. 이번 가을 메이크업도 그 결을 따른다. 눈가에는 차분한 색을 여러 겹 포개 깊이를 만들고, 경계는 또렷하게 나누기보다 부드럽게 풀어낼 것. 치크와 입술에는 비슷한 온도의 색을 이어 얼굴 전체의 톤을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짙게 칠하지 않아도 충분히 깊고, 힘을 주지 않아도 그윽한 얼굴. 울가을, 색을 쌓는 방식이 달라진다.



LOOK. 1 AUTUMN SHADOW

가을의 브라운은 짙게 칠할수록 멋진 색이 아니다. 베이지를 시작으로 부드러운 브라운과 한층 깊은 브라운을 차례로 포개면 선명한 라인 없이도 눈매에 자연스러운 깊이가 생긴다. 이때 색의 경계를 또렷하게 남기기보다 서로 스며들 듯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포인트. 아이라인은 과감히 덜어내고 속눈썹만 깔끔하게 올려 음영 자체가 눈매의 윤곽이 되도록 한다. 피부는 보송하게 정돈하고 입술에는 누디한 핑크 베이지를 더해 무게를 덜어내면 차분하지만 충분히 깊은 브라운의 매력이 드러날 것.

FACE 상앗빛 코렉팅 베이스 UV 프로텍터를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발라 피부 톤을 맑고 균일하게 정돈한다. 이어 블랙 쿠션 메쉬 파우더를 가볍게 두드려 매끈한 블러 효과가 돋보이는 보송한 베이스로 마무리할 것. 블러쉬 #456 넛셸은 광대뼈 위를 부드럽게 스치듯 더해 얼굴에 자연스러운 윤곽과 깊이를 살린다.

EYES 퀴드 아이 컬러 #03 누디 토프의 가장 밝은 컬러를 눈두덩 전체에 펼쳐 깨끗한 바탕을 만든 뒤, 소프트 브라운부터 짙은 브라운까지 농도를 높여가며 켜켜이 쌓는다. 선명한 아이라인은 과감히 생략하고 색도의 명암만으로 눈매에 깊이를 더한 뒤, 리치 컬러링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한 올 한 올 또렷하게 세워 마무리한다.

LIPS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 #134 핑크 헤이즈를 입술 라인을 따라 섬세하게 채워 누디한 핑크 베이지 립을 연출한다. 부드러운 세미 매트 텍스처가 브라운 아이의 깊이를 가볍게 덜어내며 세련된 균형을 더한다.



1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 #134 핑크 헤이즈 5g 4만원. 2 헤라 블러쉬 #456 넛셸 5.5g 5만원. 3 헤라 퀴드 아이 컬러 #03 누디 토프 9g 6만9천원.

LOOK. 2

DEEP IN AUTUMN

가을이 깊어질수록 조금 더 과감해도 좋다. 이번에는 붉은 기를 머금은 브라운을 눈두덩에만 가두지 않고 눈꼬리에서 언더라인까지 길게 이어 눈매 전체를 감싸듯 표현한다. 위아래의 음영이 자연스럽게 맞닿으면 아이라인을 날카롭게 빼지 않아도 눈매는 한층 길고 깊어 보인다. 볼에는 로지 브라운을 가볍게 스치고, 입술에는 살몬 코랄의 온기를 더해 짙어진 눈매와 균형을 맞춘다. 한 톤 깊어진 색과 길게 이어지는 음영만으로 익숙한 브라운이 조금 더 대담한 무드를 완성한다.



FACE UV 프로텍터 톤업 피치를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발라 피부 톤을 맑게 정돈한 뒤,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으로 결이 은은하게 살아 있는 베이스를 연출한다. 블러셔 #441 로지 베일을 가볍게 퍼뜨려 붉은 브라운 아이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로지 톤의 생기를 더한다.

EYES 퀴드 아이 컬러 #01 시에나 코랄의 붉은 컬러를 중심으로 눈두덩에 깊이를 더하고, 눈꼬리에서 언더라인까지 음영을 길게 연결해 LOOK 1보다 한층 선명한 인상을 만든다. 경계는 부드럽게 풀어 색이 자연스럽게 번진 듯 표현하고, 아이디자이너 펜슬로 눈꼬리의 방향을 섬세하게 연출한다.

LIPS 루즈 클래식 #224 레이디 코랄을 입술 전체에 부드럽게 펼쳐 살몬 코랄 특유의 따뜻한 생기를 입힌다. 크림미한 텍스처와 은은한 윤기가 깊어진 눈매와 대비를 이루며 얼굴에 한층 부드러운 온도를 더한다.



- 1 헤라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 SPF15/PA++ 30g 7만2천원.
2 헤라 퀴드 아이 컬러 #01 시에나 코랄 9g 6만9천원. 3 헤라 루즈 클래식 #224 레이디 코랄 3.5g 5만원.





LOOK. 3

AUTUMN EMBER

질은 음영을 걷어낸 자리에는 따뜻한 색의 온도만 남긴다. 브라운과 브론즈는 눈가에 열게 펼쳐 은은한 깊이만 더하고, 코랄 브라운 치크를 부드럽게 이어 눈과 볼 사이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풀어낸다. 누디한 로즈와 살몬빛 입술에는 촉촉한 윤기를 얹어 앞선 두 룩보다 가볍게 마무리할 것. 비슷한 계열의 컬러를 사용하되 농도와 질감을 조금씩 달리하면 얼굴 전체가 하나의 색으로 묻히지 않고 은근한 입체감이 살아난다. 선명한 색 대신 잔잔한 온기가 오래 남는, 가을의 또 다른 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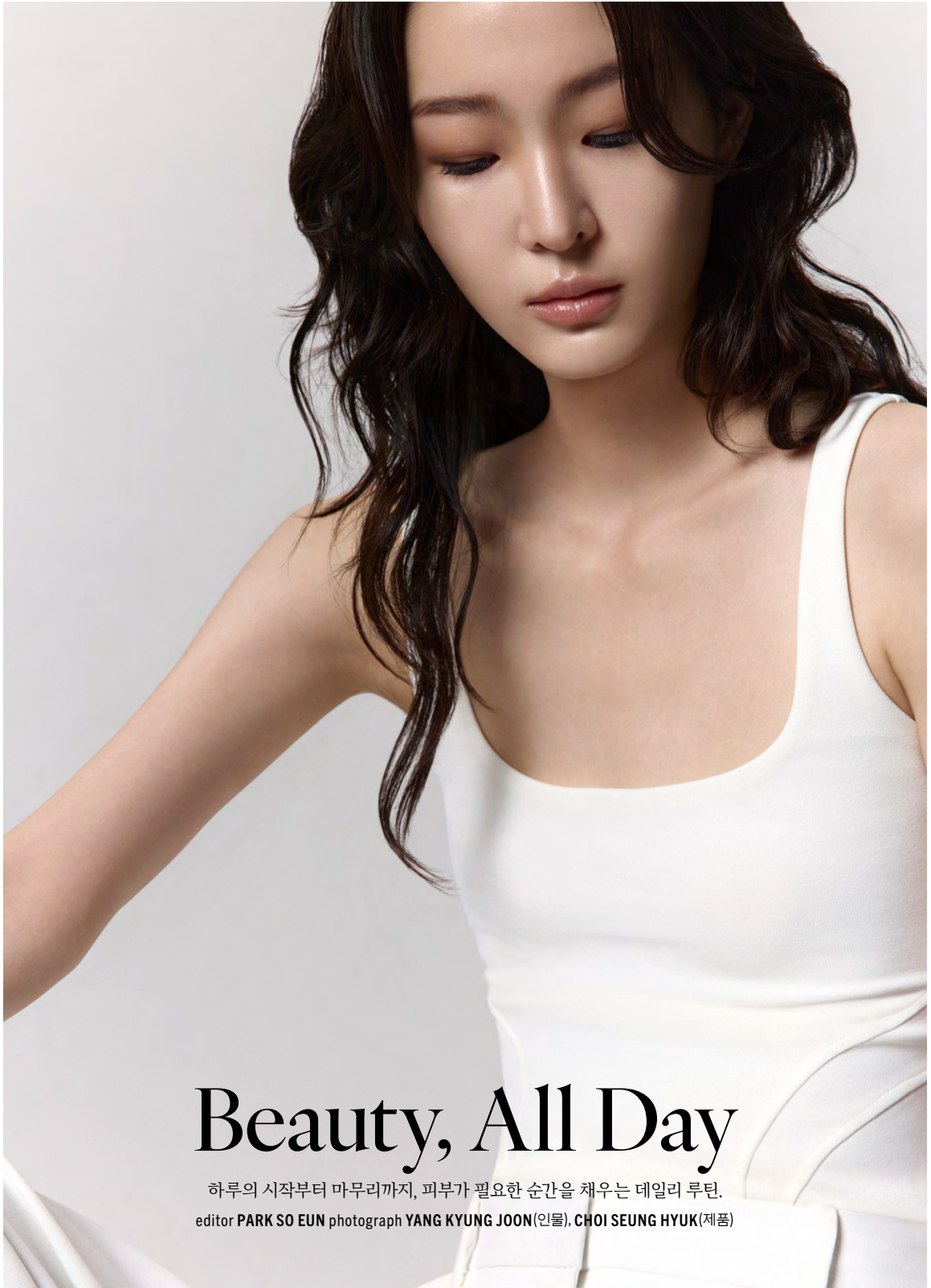
FACE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을 얇게 펴 발라 피부 본연의 결을 살리면서 은은한 윤기가 감도는 베이스를 만든다.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파우더는 빛이 닿는 부위에 가볍게 얹어 입체감을 살리고, 리플렉션 리퀴드 블러쉬 #422 란제리는 볼을 중심으로 부드럽게 퍼뜨려 코랄 브라운의 따뜻한 기운을 더한다.

EYES 브라운과 브론즈 계열의 리플렉션 리퀴드 블러쉬 #422 란제리를 눈두덩에 얇게 겹쳐 앞선 두 룩보다 힘을 덜어낸 은은한 음영을 표현한다. 눈매의 윤곽을 선명하게 강조하기보다 색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경계를 풀어주고, 아이디자인러 펜슬로 속눈썹 사이를 섬세하게 채운 뒤 리치 컬링 워터프루프 마스크라로 깔끔하게 마무리한다.

LIPS 센슈얼 샤인 틴트 #456 클루리스의 누디한 로즈 살몬 컬러를 입술에 얇게 물들이듯 바른다. 투명한 윤기를 살려 촉촉하게 마무리하면 눈과 볼에 이어진 따뜻한 색감이 입술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한층 부드러운 인상을 남긴다.



1 헤라 리플렉션 리퀴드 블러쉬 #422 란제리 7.5g 4만7천원. 2 헤라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파우더 #01 글로우 8g 5만3천원. 3 헤라 센슈얼 샤인 틴트 #456 클루리스 5g 4만원.



Beauty, All Day

하루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피부가 필요한 순간을 채우는 데일리 루틴.

editor **PARK SO EUN** photograph **YANG KYUNG JOON**(인물), **CHOI SEUNG HYUK**(제품)

1 GENTLE START

아침 세안의 기준은 깨끗함보다 편안함에 가깝다.
밤사이 피부에 남은 피지와 노폐물은 걷어내되 피부가
필요로 하는 수분까지 빼앗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풍성한 거품으로 여러 번 씻어내기보다 부드러운
밀크 타입 클렌저를 얼굴에 마사지하듯 롤링해 가볍게
씻어낸다. 세안 후에도 피부가 땅기거나 뻣뻣하지
않도록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면 다음에 이어질
스킨케어도 한결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다.



Redefining Cleansing Milk

세정 후의 땅김이 신경 쓰인다면 밀크 타입 클렌저가 좋은 선택이 된다. 피부와 유사한 약산성 포몰러에 부드럽고 유연한 제형을 적용해 피부 표면의 노폐물을 편안하게 걷어내고, 세안 후에도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결을 남긴다. 아침 세안은 물론 건조함이 심해지는 환절기에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은 제품.

홀리추얼 리디파이닝 클렌징 밀크 200ml 4만6천원.



ENERGY LIFT



깨끗해진 얼굴에는 아침의 생기를 더한다. 세럼을 바르는 짧은 시간도 손의 움직임을 더하면 제법 근사한 홈 케어가 된다.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쓸어 올리며 마사지하면 굳어 있던 얼굴의 긴장이 풀리고 얼굴이 한결 또렷해 보인다. 목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해 관리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볍게 감싸 흡수시키면 바쁜 아침에도 피부를 제대로 돌봤다는 생각에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다.

Core Lift Activating Serum

바르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마사지까지 고려해 만든 멀티 리프팅 세럼. 저분자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과 피부 탄력을 케어하는 아세틸테트라펩타이드-11, 항산화 성분인 레스베라트롤 등을 조합해 탄력과 주름 고민을 함께 관리한다. 매끄러운 텍스처가 마사지를 하는 동안 충분한 롤링감을 유지해 얼굴부터 목까지 탄탄하게 관리하기 좋다.

홀리추얼 코어 리프트 액티베이팅 세럼 140ml 10만5천원.

MIDDAY REFRESH



오후가 되면 아침에 공들인 피부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온다. 냉난방이 반복되는 실내에서 건조함이 느껴지거나 메이크업의 윤기가 사라졌다면 스킨케어를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다. 미스트를 얼굴 전체에 가볍게 분사해 부족해진 수분을 보충하고 잠시 피부를 환기할 것. 책상 위나 파우치 속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오후의 푸석한 인상을 한결 산뜻하게 바꿀 수 있다.

Nutri Elixir Mist

단순한 수분 보충을 넘어 피부의 맑은 인상까지 함께 케어하는 브라이트닝 멀티유스 미스트. 백합, 에델바이스, 화이트 프리지어 등 여덟 가지 화이트 플라워에서 착안한 불량 에플로레스상스 워터™를 80% 담아 건조하고 생기 없는 피부에 촉촉한 윤기를 더한다. 미세하게 퍼지는 분사력으로 메이크업 위에도 가볍게 사용할 수 있으며 얼굴과 보디를 두루 케어하기에도 유용하다.

홀리추얼 뉴트리 엘릭서 미스트 140ml 5만8천원.

CONCENTRATE



하루의 끝에는 조금 더 공들인 케어가 어울린다. 매일 사용하는 기본 스킨케어만으로 아쉽게 느껴지는 시기라면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앰플을 루틴에 더해볼 것. 피부 톤과 결, 탄력까지 복잡한 고민을 여러 단계로 쪼개 다양한 제품을 덧바르기보다, 하나의 집중 프로그램으로 꾸준히 다스리는 방식이다.

Redefining Ampoule 4 Weeks Program

기미의 연쇄는 끌어내고 페이스 다이아몬드 존의 입체 탄력을 채우는 4주의 기적을 선사하는 집중 관리 프로그램. 2배 늘어난 글루타치온 함량으로 더욱 강력해진 3종 항산화 콤플렉스가 트라넥삼산과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안정화시켜 맑고 깨끗하게 빛나는 피부를 선사한다. 또한 식물 유래 EGF와 피부 모사 콜라겐, 3종 펩타이드를 함유해 느슨해진 피부 밀도를 촘촘하게 채워 탄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히알루론산 5종의 깊은 보습과 베타글루칸 성분의 진정 케어까지 더해 정교하게 세공된 듯 매끈하고 유려한 피부결을 완성한다.

홀리추얼 리디파이닝 앰플 4주 프로그램 12ml×8ea 28만원.

DEEP NOURISH



마지막에는 피부를 충분히 감싸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특히 공기가 차고 건조해지는 계절에는 밤사이 피부가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습과 영양의 밀도를 조금 높여도 좋다. 크림을 얼굴 전체에 천천히 펴 바른 뒤 건조함이 쉽게 느껴지는 볼과 입가에는 한 번 더 덧바르고, 남은 양은 목까지 연결해 바른다. 하루 동안 여러 번 이어진 케어의 마지막을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보습으로 마치는 순간이다.

Ultra Nourishing Advanced Cream

피부가 유난히 메마르고 힘을 잃어 보이는 날 마지막 단계에 더하기 좋은 고영양 안티에이징 크림. 사프란과 수분 보호 성분 엑토인을 중심으로 보습과 탄력, 윤기를 함께 케어해 건조함으로 인해 푸석해진 피부를 한층 유연하고 매끄럽게 가꾼다. 밀도 높은 텍스처가 피부를 풍부하게 감싸는 만큼 늦가을부터 겨울까지 영양감 있는 나이트 케어로 활용하기 좋다.

홀리추얼 울트라 너리싱 어드밴스드 크림 80ml 22만원.





All Eyes On Me

가장 먼저 피로를 말하고, 가장 섬세하게 시간을 드러내는 눈가. 이제 모든 시선을 이곳에.

editor **PARK SO EUN** photograph **YANG KYUNG JOON**(인물), **CHOI SEUNG HYUK**(제품)

칙칙한 다크서클부터 부어
보이는 아이백, 탄력 저하까지
복합적인 눈가 고민을 한 번에
케어하는 아이 세럼. 산뜻한 세럼
텍스처에 전용 마사저를 더해
쉽게 지쳐 보이는 눈가를 맑고
생기 있게 가꿔준다.

설화수 윤조아이세럼 20ml
11만5천원.



Awaken The Eyes

컨디션은 괜찮은데 피곤해 보인다면
눈 밑의 그늘만 닦할 일은 아니다.
다크서클은 피부 톤 하나로 설명하기
어려운 눈가 고민이다. 눈 밑이 붓거나
탄력이 떨어지면 그늘이 더욱 도드라져
인상까지 무거워 보일 수 있기 때문. 그래서
눈가를 맑게 가꾸는 것과 함께 정제된
듯한 컨디션을 깨우고 탄탄하게 관리하는
접근이 중요하다. 아침마다 유독 눈 밑이
무겁고 칙칙해 보인다면 밝기만이 아니라
눈가 전체의 컨디션을 함께 살려볼 것.

Define The Gaze

또렷한 인상을 만드는 데 눈매만큼 중요한 것이 눈가 탄력이다. 눈 밑부터 눈두덩, 눈꼬리까지 피부가 얇은 만큼 건조함과 탄력 저하가 동시에 나타나기 쉽고, 작은 변화만으로도 눈매가 전보다 흐릿해 보일 수 있다. 이럴 때는 눈 밑에만 아이 크림을 찍어 바르는 데 그치지 말고 눈가 전체를 하나의 존으로 생각해 관리해볼 것. 충분한 보습을 바탕으로 탄력을 촘촘하게 채우면 눈가의 인상도 자연스럽게 달라진다.

LIFT-PLA™
Ectoin
saffron extract
30 mL

눈 밑은 물론 눈두덩과
눈꼬리까지, 눈가 전체의 보습과
탄력을 케어하는 고효능 아이
크림. 저자극 고밀도 피팅
포뮬러가 피부에 편안하게
밀착되어 번들거림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메이크업 전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홀리추얼 울트라 너리싱 어드밴스드
아이 크림 30ml 9만8천원.

깊어진 주름과 탄력 저하처럼
시간이 지나며 선명해지는
눈가의 노화 흔적을 밀도 있게
관리하는 안티에이징 아이 크림.
리치하면서도 피부에 정교하게
밀착돼 느슨해진 눈가를
탄탄하고 매끄럽게 가꿔준다.
설화수 진설아이크림 20ml
27만원.



Hold Back Time

시간이 눈가에 남기는 것은 주름만이 아니다. 눈꼬리가 조금씩 아래로 향하고 눈 밑이 느슨해지면서 한때 또렷했던 눈매의 윤곽도 서서히 달라진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촉촉함을 채우는 것을 넘어 얇고 섬세한 눈가를 탄탄하게 받쳐주는 밀도 높은 케어. 특히 눈을 뜨고 감고 웃는 동안 끊임없이 움직이는 부위인 만큼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면 눈 밑부터 눈꼬리까지 하나의 영역으로 보고 관리하는 것이 좋다.

READY, SET,

피부를 읽고, 필요한 케어를 고른다. 한층 정교하고 전문적으로
진화한 메이크온의 써마리프트. editor **PARK SO EUN**

LIFT



전문적인 관리의 방식을 매일의 탄력 루틴으로



메이크온 써마리프트 80만원대.

나이가 들수록 탄력 고민은 한곳에 머물지 않는다. 어느 날은 볼이 꺼져 피곤해 보이고, 어느 날은 턱선이 둔해져 인상이 무거워진다. 탄력이 아쉬운 날, 피부가 유난히 건조한 날, 칙칙하고 결이 거칠어 보이는 날에 필요한 관리의 모두 다르다. 그렇다고 갑자기 달라진 얼굴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나다움을 지키면서 티 나지 않게 탄탄해지는, 자연스러운 동안이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다.

전문 관리가 떠오르지만 비용과 통증, 방문 부담을 생각하면 꾸준히 이어가기 쉽지 않다. 그래서 홈 케어 기기를 고를 때도 기능의 개수보다 전문 관리 방식이 얼마나 정교하게 담겼는지를 살펴야 한다. 메이크온의 신제품 써마리프트는 여기서 출발한다. 먼저 경피 수분 손실량(TEWL)과 피부 수분 전도도(SCH)를 측정해 피부 장벽과 수분 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맞는 관리 모드를 자동으로 제안한다. 막연히 집착하던 피부 컨디션을 직접 측정하고 실제 케어로 연결하는 것.

관리 방식도 하나로 한정하지 않았다. 서로 다른 깊이를 관리하는 6.78MHz와 1MHz 고주파(RF) 2종, 전기천공(EP), 미세전류(MC)를 활용해 펄싱·써마·광채·윤곽 네 가지 모드로 세분화했다. 진피 심부의 속탄력부터 표면 주름, 결과 광채, 얼굴 라인까지 고민에 따라 방향을 달리할 수 있다. 특히 고주파를 쓰는 펄싱, 써마 모드는 피부에 닿으면 속에서부터 열감이 시작되고, 한 부위에 오래 머물면 이동을 안내하며, 피부에서 떼면 타이머가 멈추도록 설계했다.

한 번의 큰 변화보다 매일 쌓이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위해, 전문 관리를 받기 어려운 날에도 집에서 케어의 흐름을 이어가는, 조금 더 스마트하고 정교한 탄력 루틴이다.

CHECK POINT

1 Check Your Skin

좋은 케어의 시작은 지금의 피부를 아는 것부터. 써마리프트는 TEWL과 SCH 두 가지 지표를 측정해 피부 장벽과 수분 상태를 확인한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측정된 지수를 바탕으로 그날의 컨디션에 맞는 관리 모드까지 자동으로 제안한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 짐작하던 피부 상태를 수치로 확인하고, 실제 케어까지 연결한다는 것이 첫 번째 차별점이다.

2 Choose Your Mode

RF 1MHz를 사용하는 펄싱 모드는 진피 심부까지 고주파를 전달해 속탄력과 콜라겐, 엘라스틴 생성을 관리하고, RF 6.78MHz의 써마 모드는 피부 표면 주름과 내부 콜라겐, 엘라스틴 생성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 전기천공(EP)을 이용해 유효 성분의 흡수를 돕는 광채 모드, 미세전류(MC)로 얼굴 근육을 자극하는 윤곽 모드를 더해 그날의 고민에 따라 케어를 달리할 수 있다.

3 Level Up Your Care

홈 케어의 범위를 피부 표면에만 두지 않은 것도 눈여겨볼 부분. 펄싱 모드는 진피 심부의 속탄력, 써마 모드는 피부 표면 주름과 내부 콜라겐, 엘라스틴 생성, 광채 모드는 흡수와 피부결, 광채, 윤곽 모드는 얼굴 라인을 각각 타겟으로 한다. 하나의 고민을 반복적으로 관리하기보다 피부 속부터 겉, 얼굴 윤곽까지 서로 다른 영역을 하나의 디바이스로 아우르는 방식이다.

PRODUCT REVIEW

One Sheet, Triple Shot

피부 컨디션이 무너진 순간, 한 장으로 완성하는 집중 리페어 케어.

editor PARK SO EUN photograph YANG KYUNG JOON





@_young_bbi



#집중케어 #매끈피부결

“요즘 피부 컨디션이 조금 떨어졌다 싶을 때면 이것저것 많이 바르기보다 한번에 제대로 케어해주는 제품을 찾게 되더라고요. 클리니컬 레스폰스 트리플 샷 리페어 마스크는 시트가 피부에 촘촘하게 밀착돼 들뜸이 적고, 사용 후에는 촉촉함이 팍 차면서 피부결도 한층 매끈해진 느낌이었어요. 메이크업 전이나 중요한 일정 전날처럼 피부 컨디션을 조금 더 신경 쓰고 싶은 날 사용하기 좋아요.”

#스킨케어마무리 #촉촉피부

“요즘 피부가 푸석하고 건조하게 느껴질 때면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클리니컬 레스폰스 트리플 샷 리페어 마스크로 촉촉하게 마무리해요. 얼굴에 밀착되는 시트라 들뜸이 적고, 사용 후에는 피부가 한층 촉촉하고 매끈하게 느껴졌어요. 피부 컨디션이 신경 쓰이는 날, 집에서 간편하게 촉촉한 피부 관리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하기 좋아요.”



@jiyoung_vo

@manyflowerd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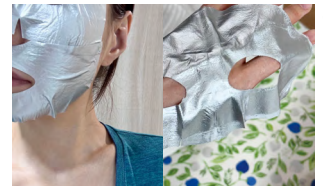


#신개념마스크 #고보습케어

“이게 정말 팩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신선했는데, 겉으로 에센스가 흘러내리거나 묻어나는 타입이 아니라 피부에 필요한 촉촉함을 안에 가두는 듯한 사용감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스크를 떼어낸 뒤에도 겉은 번들거리지 않으면서 피부 속은 촉촉하게 차오른 느낌이라, 피부가 지치고 건조하게 느껴지는 날 집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싶을 때 사용하고 있어요.”

#물광피부 #수분충전

“요즘 제 물광 피부 유지 비결은 클리니컬 레스폰스 트리플 샷 리페어 마스크예요.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는 팩으로, 건조함을 팍 잡아주는 느낌이 좋았어요. 트리플 샷 크림 3종의 유효 성분을 담은 고효능 시트 마스크로 AP 단독 히알루론산, AP 단독 PDRN, 엑소좀 성분을 담았다고 해요. 사용 후 피부에 수분감이 가득 채워지는 느낌이라 촉촉함을 되찾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요.”



@myungni_

#건조피부케어 #간편케어

“피부가 푸석하고 건조하게 느껴질 때 집에서 간편하게 집중 케어하고 있어요.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클리니컬 레스폰스 트리플 샷 리페어 마스크를 사용하는데, 얼굴에 밀착되는 시트라 들뜸이 적고 사용 후에는 피부가 한층 촉촉하고 매끈하게 느껴졌어요. 피부 컨디션이 신경 쓰이는 날이나 집에서 간단하게 촉촉한 피부 관리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eunbeeing1216

Editor's Comment

유효 성분이 금세 마르는 느낌 없이 피부에 충분히 전달되는 느낌이에요. 시술 후 피부가 예민해진 시기에 사용하면 진정은 물론, 시술 효과를 더욱 끌어올리는 데도 도움이 되죠. 조금 더 드라마틱한 변화를 원한다면 홈 디바이스를 함께 활용해보는 것을 추천해요.”

에디터 박소은



Night Shift

잠든 사이 시작되는 집중 케어. 진정부터 리페어, 탄력까지 밤사이 피부 컨디션을 탄탄하게 끌어올리는 헤라의 새로운 리페어 밤. editor **PARK SO EUN**

피부 컨디션은 늘 일정하지 않다. 평소와 같은 스킨케어를 했는데도 유난히 건조하고 예민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는가 하면, 충분히 쉬었는데도 피부결이 거칠고 탄력까지 떨어져 보일 때가 있다. 특히 환절기의 급격한 온도 변화나 건조한 환경처럼 크고 작은 외부 자극이 반복되면 이런 변화는 더욱 쉽게 눈에 띈다. 그렇다고 컨디션이 떨어질 때마다 스킨케어 단계를 하나둘 늘리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진정이 필요한 피부를 먼저 편안하게 다독이고, 그다음 리페어와 탄력까지 차례로 이어갈 것. 헤라는 피부 컨디션이 무너진 순간 필요한 세 가지 케어를 하나의 밤에 담았다.

새롭게 선보이는 인텐시브 퍼밍 리페어 밤의 매력은 하나의 사용법에 머물지 않는다는 데 있다. 연구에서 영감을 받은 도통한 하이드로 겔 텍스처가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며 밀착되고, 저녁에는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넉넉히 펴 발라 밤사이 집중 케어할 수 있다. 피부가 갑작스럽게 건조하고 예민해진 낮에는 필요한 부위에 소량 덧바르는 것도 방법. 매일의 루틴을 마무리하는 크림으로도, 유난히 피부 컨디션이 떨어진 날을 위한 스페셜 케어로도 활용할 수 있다. 오늘 피부가 평소 같지 않다면, 잠들기 전 이 밤을 한 겹 더해볼 것.

RE:CALM

예민해진 피부부터 편안하게

컨디션이 무너진 피부에는 무엇보다 진정이 먼저다. 피부 진정과 장벽 케어를 돕는 판테놀, 외부 자극으로 인한 손상 케어에 효과적인 피토스테롤을 더해 예민해진 피부를 편안하게 다독인다. 도통한 하이드로 겔 밤 텍스처가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며 밀착돼, 건조하고 민감해진 피부에 편안한 보습막을 더한다.

RE:PAIR

진정을 넘어 본격적인 리페어로

피부가 편안해졌다면 흐트러진 컨디션을 되돌릴 차례. 센텔라 아시아티카 1%와 아모레퍼시픽의 특허 PDRN을 조합해 외부 자극으로 약해진 피부의 리페어를 돕는다. 단순한 진정에 머무르지 않고 피부가 다시 탄탄한 컨디션을 되찾을 수 있도록 회복에 힘을 실는 단계다.

RE:NEW

회복 다음은 탄력까지 탄탄하게

마지막은 탄력에 집중한다. 피부 탄력과 보습을 돕는 리얼 콜라겐에 네 가지 콜라겐을 다각도로 케어하는 4-Way 바이오 펩타이드를 더해 힘없이 느슨해진 피부를 탄탄하게 가꾼다. 진정과 리페어를 지나 탄력과 밀도까지 끌어올리며 밤사이 집중 케어를 완성한다.

HERA

피부가 유난히 지치고 예민해진 날, 진정부터 리페어, 탄력까지 한 번에 집중 케어하는 멀티 트리트먼트 밤. 도통하게 밀착되는 하이드로 겔 텍스처가 피부를 편안하게 감싸고 탄탄하고 매끄러운 피부 컨디션으로 가꿔준다.

헤라 인텐시브 퍼밍 리페어 밤 50ml 5만7천원.





Repair, Awakened

사용 직전 깨워 완성하는 리페어 에너지. 지친 피부를 위한 설화수의 새로운 마스크 리추얼.

editor PARK SO EUN

시트 마스크는 이미 앰플에 흠뻑 젖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면 설화수의 새로운 마스크는 조금 다르다. 자음생앰플마스크의 패키지를 열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보송보송하게 마른 동결건조 시트. 여기에 함께 들어 있는 부스팅 앰플을 직접 부어 촉촉하게 적시는 순간, 시트에 안정적으로 보존되어 있던 유효 성분이 비로소 깨어난다. 수분을 제거한 상태로 성분을 보존하는 동결건조 방식을 적용해 펩타이드와 콜라겐, 프로바이오틱스처럼 열이나 수분에 영향을 받기 쉬운 성분을 사용 직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한 것.

새로운 건 사용법만이 아니다. 자음생앰플에서 영감을 받은 리페어 성분을 한 장의 마스크로 보다 집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매일 차곡차곡 쌓아가는 앰플 케어와 달리, 피부 컨디션이 유독 떨어진 날이나 평소보다 탄력과 진정에 조금 더 공을 들이고 싶은 날 꺼내 드는 스페셜 케어에 가깝다. 얼굴 전체의 진정과 회복을 고려하는 동시에 미간과 애플존처럼 모공과 탄력이 신경 쓰이는 부위는 한 번 더 세심하게 케어하도록 시트의 성분까지 달리 설계했다. 익숙한 자음생의 안티에이징 케어를 한 장에 응축해, 필요할 때 보다 집중적으로 경험하는 새로운 방법인 셈이다.

Why Freeze-Dried?

왜 동결건조 시트를 택했을까?

마스크 속 성분도 시간이 흐르는 동안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설화수가 시트와 앰플을 처음부터 적셔두지 않고 분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효 성분을 -40℃에서 빠르게 얼린 뒤 수분을 제거하는 동결건조 공법을 적용해, 사용 전까지 성분을 보다 안정적인 상태로 보존하도록 한 것. 특히 온도와 압력을 정밀하게 제어해 제조할 때마다 성분의 농도와 효능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설계했다. 좋은 성분을 많이 담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처음부터 사용하는 순간까지 그 상태를 얼마나 잘 지켜낼 것인가에 주목한 기술이다.

What's In The Booster?

부스팅 앰플에는 무엇을 담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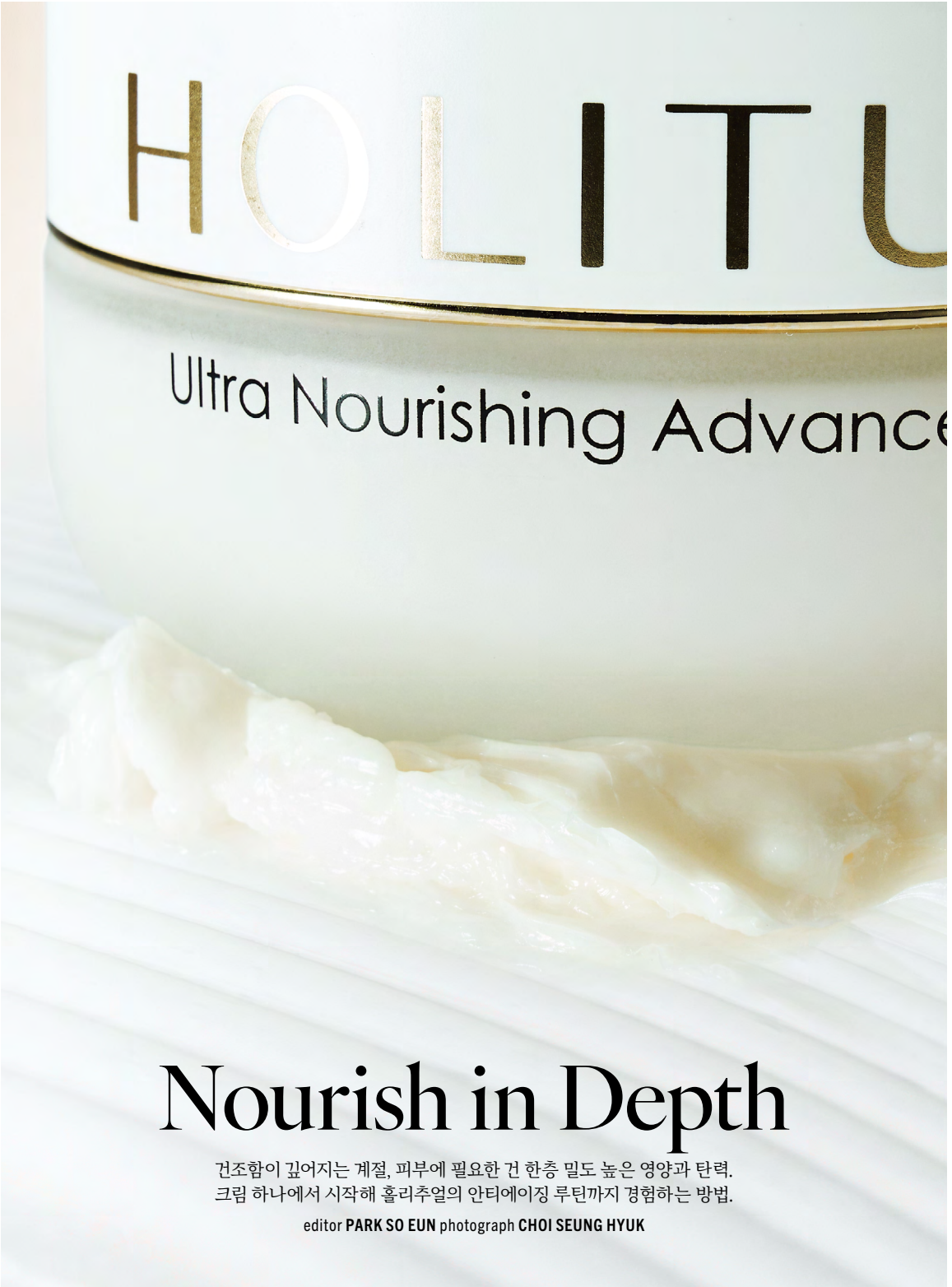
자음생앰플의 핵심을 마스크에 맞게 풀어낸 부스팅 앰플. 설화수의 대표 안티에이징 성분인 진세노믹스™와 인삼의 뿌리부터 줄기, 잎, 열매, 꽃까지 아우른 인삼전초 성분을 중심으로, 피부유사콜라겐과 5종 히알루론산, 마데카소사이드를 함께 담았다. 각각 탄력과 보습, 진정을 빈틈없이 보완하며 외부 자극으로 컨디션이 흐트러진 피부를 다각도로 케어하는 구성이다. 자음생앰플이 지닌 리페어의 방향성은 이어가되, 한 장의 마스크로 충분히 적셔 피부에 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완성한 포뮬러다.



Sulwhasoo

동결건조 시트에 부스팅 앰플을 사용 직전 부어 완성하는 집중 마스크. 얼굴 전체의 진정과 회복은 물론 미간과 애플존의 모공, 탄력까지 부위별로 세심하게 케어해 피부 컨디션을 빠르게 끌어올린다.

설화수 자음생앰플마스크 시트 5매, 부스팅 앰플 25ml×5개 12만5천원.



HOLITU

Ultra Nourishing Advanced

Nourish in Depth

건조함이 깊어지는 계절, 피부에 필요한 건 한층 밀도 높은 영양과 탄력.
크림 하나에서 시작해 홀리추얼의 안티에이징 루틴까지 경험하는 방법.

editor PARK SO EUN photograph CHOI SEUNG HYUK

계절이 바뀌는 순간 피부가 먼저 알아챈다. 이럴 때 스킨케어에서 먼저 챙겨야 할 것은 피부가 편안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분과 보습을 채우는 것.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각질층의 수분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본래의 역할도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홀리추얼 울트라 너리싱 어드밴스드 크림은 이렇게 스킨케어의 밀도를 높이고 싶은 계절에 어울린다. 농밀하고 영양감 높은 텍스처가 피부를 감싸 24시간 보습을 유지하고, 건조함뿐 아니라 탄력과 주름, 피부 톤과 광채까지 폭넓게 케어한다. 피부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피부가 건강한 컨디션을 오래 이어갈 수 있도록 기본을 탄탄하게 다지는 것. Cell Reset과 Rejuvenation을 이야기하는 지금, 보습이 다시 중요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기획 세트에서는 이 크림을 중심으로 홀리추얼의 스킨케어 루틴까지 함께 경험할 수 있다. 울트라 너리싱 어드밴스드 크림 80ml 본품에 리디파이닝 클렌징 밀크, 울트라 너리싱 어드밴스드 토너와 에멀전, 아이 크림, 크림 미니어처를 더했다. 부드러운 클렌징으로 시작해 수분과 영양을 차곡차곡 쌓고 눈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한 뒤, 마지막에는 울트라 너리싱 어드밴스드 크림으로 충분히 감싸는 순서. 하나의 크림에서 시작해 홀리추얼이 제안하는 안티에이징 루틴 전체로 케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구성이다.



Point 1

8시간* 만에 달라지는 탄탄한 피부
피부 속부터 걸까지 탄탄하게 차오르는 듯한 피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Point 2

5배* 견고한 피부 컨디션
주름과 탄력뿐 아니라 피부 톤까지 함께 케어해 피부 전반의 노화 고민을 폭넓게 해결하는 안티에이징 크림이다.

Point 3

24시간* 지속되는 밀도 높은 보습
영양감이 풍부한 크림이한 밤 텍스처가 피부를 매끄럽게 감싸고 오랜 시간 촉촉함을 유지한다.

*시험 대상: 무너진 페이스 라인이 고민인 만 40~59세 여성

시험 기간: 2024.4.8~2024.5.13 | 시험 기관: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터(주)



일교차와 건조한 공기로 피부 컨디션이 쉽게 흐트러지는 가을, 탄력과 보습을 함께 챙길 때. 고귀한 사프란과 엑토인을 담아 피부 장벽부터 탄력까지 복합적인 노화 고민을 관리하고, 농밀한 영양감의 텍스처가 피부를 감싸 24시간 촉촉함을 유지한다.

홀리추얼 울트라 너리싱 어드밴스드 크림 기획 세트 80ml 22만원.

WELLNESS INNER BEAUTY



Active Aging

매일의 체력부터 필요한 영양까지,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아가는 두 가지 습관.

editor PARK SO EUN photograph YANG KYUNG JOON

챙길 건 많아져도, 방법은 간단하게

나이가 들수록 식탁 위 영양제의 종류가 하나둘 늘어난다. 기본으로 먹던 종합비타민에 혈행이 신경 쓰여 오메가3를 더하고, 눈이 쉽게 침침하고 건조해지는 것 같아 루테인도 챙긴다. 혈압과 항산화까지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아침마다 열어야 할 영양제 통만 여러 개. 건강한 몸을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는 게 번거롭고, 여러 알을 매일 챙겨 먹는 일도 점점 부담스러워진다.

그렇다고 중장년 이후 필요한 영양 관리까지 단순해지는 것은 아니다. 올인원 멀티팩은 한국 중장년의 생리적 변화를 고려해 영양 전문가와 공동 개발한 제품으로, 13종 비타민과 8종 미네랄에 코엔자임Q10, 루테인, 오메가3를 함께 구성했다. 기초 영양은 물론 항산화와 혈압·혈행, 눈 건강처럼 나이가 들수록 신경 쓰이는 부분까지 폭넓게 챙길 수 있는 것. 섭취 방법은 간단하다. 비타민과 미네랄 3정, 기능성 원료 3캡슐을 각각 한 포에 담아 성인 기준 하루 한 번, 두 포를 함께 섭취하면 된다. 여러 영양제 병을 늘어놓는 대신 하루 한 번 필요한 영양을 간결하게 챙기는 방식이다.

Editor's Comment

영양제도 결국 꾸준함이 답이다. 아무리 좋은 성분을 골라도 여러 병을 열어 하나씩 챙기는 일이 번거로우면 어느 순간 건너뛰게 되기 마련. 하루 한 번, 두 포만 기억하면 되니 부모님의 영양 루틴을 간결하게 정리해드리고 싶을 때도 좋은 선택이다.” 에디터 박소은



중장년을 고려한 13종 비타민과 8종 미네랄에 코엔자임Q10, 루테인, 오메가3를 더한 24종 복합 기능성 멀티팩. 기초 영양부터 혈압과 혈행, 눈 건강까지 하루 한 번의 간편한 섭취로 폭넓게 챙길 수 있다.

바이탈뷰티 올인원 멀티팩 30일분 15만원.



나이 들수록, 체력에도 저축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면 몸이 보내는 신호부터 달라진다. 예전과 비슷하게 움직였는데도 쉽게 지치고, 한번 떨어진 컨디션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유난히 기운이 없거나 잔병치레가 끊이지 않고, 껌딱하는 일이 늘거나 혈액순환까지 걱정되기 시작한다. 특별히 아픈 곳이 없어도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실감하는 시기다.

그래서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아픈 곳이 생긴 뒤 하나씩 관리하기보다 매일의 체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기본을 미리 쌓아두는 습관이 중요하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로와 함께 면역 기능을 꾸준히 살피는 것은 일상의 컨디션을 지키는 기본이 된다. 여기에 항산화, 기억력과 혈액 흐름처럼 중장년 이후 자연스럽게 관심이 커지는 건강 영역까지 함께 챙긴다면 더욱 든든하다. 하루아침에 체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 조금씩 쌓은 건강 습관은 분명 차이를 만든다. 체력에도 저축이 필요한 이유다.

Check Point

1

피로와 면역, 함께 챙길 것

명작수 골드의 중심은 홍삼이다. 1일 섭취량에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의 합 16mg을 담아 면역력 증진과 피로 개선에 도움을 주며, 항산화와 기억력 개선, 혈소판 응집 억제제를 통한 혈액 흐름 개선까지 홍삼의 다섯 가지 기능성을 함께 챙길 수 있다.

2

하루의 에너지까지 빈틈없이

홍삼에 아연과 나이아신을 더해 일상적인 건강관리의 폭을 넓혔다.

아연 8.5mg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세포분열에, 나이아신 15mgNE는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영양소로 각각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의 100%를 충족한다. 여기에 고귀한 인삼 열매 농축액과 L-아르기닌을 부원료로 더했다.

3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하게

꾸준함이 중요한 건강관리일수록 섭취 방법은 간단한 편이 좋다. 성인 기준 하루 한 번, 액상 앰플 한 병으로 필요한 양을 섭취할 수 있고 그대로 마시거나 냉온수에 희석해 즐길 수도 있다. 부모님의 매일을 위한 건강 습관으로도, 지금부터 체력을 차곡차곡 관리하고 싶은 젊은 세대의 루틴으로도 부담 없이 이어가기 좋다.



홍삼을 중심으로 면역력 증진과 피로 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 혈액 흐름 개선까지 다섯 가지 기능성을 한 번에 챙기는 액상형 건강기능식품. 아연과 나이아신을 더해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체내 에너지 생성까지 고려했다.

바이탈뷰티 명작수 골드 20g×50앰플 32만원.



Hair, Stay Full!

한 올씩 빠지고, 조금씩 가늘어지고, 어느새 정수리 볼륨까지 달라진다. 가을의 모발 변화를 계절 탓으로만 넘기지 말 것.

editor PARK SO EUN photograph CHOI SEUNG HYUK



RYO

샤워를 마치고 배수구에 모인 머리카락이 부쩍 많아 보이고, 빗질할 때마다 빠지는 모발도 괜히 신경 쓰이는 계절. 단순히 기분 탓만은 아니다. 모발 역시 성장기와 퇴행기, 휴지기를 반복하며 계절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여성 823명을 6년에 걸쳐 분석한 연구에서도 모발 성장과 빠짐에 계절적인 주기가 관찰됐으며, 여름에는 빠질 준비를 하는 휴지기 모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늦여름을 지나며 평소보다 두드러지게 머리가 빠지는 시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더 눈여겨봐야 할 건 빠지는 양만이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발의 밀도와 굵기, 힘이 함께 달라질 수 있다. 예전과 비슷한 양이 빠져도 모발 한 올 한 올이 가늘어지면 숏이 더 적어 보이고, 힘이 떨어진 뿌리는 정수리 볼륨까지 쉽게 무너뜨린다. 그래서 가을의 헤어 케어는 빠지는 머리카락의 개수만 세는 데서 끝내지 말 것. 두피 컨디션부터 가늘어진 모발, 힘없이 꺼지는 볼륨까지 함께 살피는 관리가 필요하다. 얼굴에 세럼과 크림을 단계별로 더하듯 두피에도 조금 더 적극적인 루틴을 시작해볼 때다.



꺼진 볼륨, 뿌리부터 살릴 것

모발이 가늘어지고 뿌리에 힘이 떨어지면 전체적인 숏이 적어 보일 뿐 아니라 헤어의 실루엣까지 쉽게 무너진다. 풍성함을 오래 지키고 싶다면 눈에 보이는 볼륨보다 그 시작점인 두피부터 관리할 필요가 있다. 러 루트젠 안티에이징 3D 볼륨 에센스는 두피에 직접 사용하는 방식으로 탈모 증상을 관리하면서 가늘고 힘없이 가라앉은 모발의 볼륨까지 함께 케어한다. 특히 두피 영양 제품은 자칫 머리가 딱지거나 뿌리가 더 가라앉을까 망설이기 쉬운데, 매일 사용하기 부담스럽지 않은 사용감을 고려한 것도 특징. 머리카락을 일시적으로 부풀리는 데 그치지 않고 매일 얼굴에 에센스를 바르듯 두피에도 꾸준히 영양을 더하는 것. 풍성한 헤어를 오래 지키는 습관은 결국 뿌리에서 시작된다.

두피에 직접 영양을 공급해 탈모 증상을 관리하면서 가늘고 힘없이 처지는 모발의 볼륨까지 함께 케어하는 두피 에센스. 무겁거나 딱지는 부담을 덜어 매일 이어가는 두피 루틴으로 활용하기 좋다.

러 루트젠 안티에이징 3D 볼륨 에센스 80ml 2만4천원.

트리트먼트, 이제 두피까지 챙길 것

얼굴이 건조하고 힘없어 보이면 팩부터 찾으면서 정작 두피는 샴푸 한 번으로 끝내기 쉽다. 하지만 가늘고 힘없는 모발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면 모발 끝만 매끄럽게 만드는 트리트먼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보자. 러 명품 HBX 탈모증상완화 앰플 두피모발팩은 두피와 모발을 동시에 관리하는 탈모증상완화 기능성 팩. 두피에는 영양과 진정 케어를 더하고, 가늘고 힘없이 느껴지는 모발에는 탄력과 볼륨을 더하는 것이 포인트다. 샴푸 후 사용하는 익숙한 팩 하나로 관리 범위를 모발에서 두피까지 넓힐 수 있어, 머리 빠짐과 볼륨 저하가 동시에 신경 쓰이는 가을철 집중 케어로 활용하기 좋다.

두피에 영양과 진정 효과를 전하면서 가늘고 힘없는 모발의 탄력과 볼륨까지 함께 관리하는 탈모증상완화 기능성 팩. 두피와 모발을 한 번에 관리해 풍성하고 탄탄한 인상으로 바꿔준다.

러 명품 HBX 탈모증상완화 앰플 두피모발팩 200ml 2만6천원.



WELLNESS ROUTINE

Blue for Better

더 탄탄한 피부 컨디션을 위해, 세 단계로 이어지는
블루 PDRN 리페어 루틴. editor PARK SO EUN



3STEP Blue Effect

피부에 좋다는 성분 하나를 더 바르는 것만으로 충분했던 때가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민은 조금 더 복잡해진다. 피부결이 예전처럼 매끄럽지 않고, 탄력이 떨어지거나 건조함이 오래가며 피부 장벽까지 신경 쓰이기 시작한다. 하나의 고민이 아니라 여러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만큼 에이징 케어 역시 단순히 ‘무엇을 바를까’에서 한 발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피부 표면의 불필요한 각질과 노폐물을 정돈하고, 집중적인 안티에이징 케어를 더한 뒤, 마지막에는 충분한 보습과 영양으로 피부를 감싸는 것.

홀리추얼 블루 PDRN 라인은 이런 흐름을 세 가지 제품에 나눠 담았다. 중심에는 탄력과 장벽 저하 등 다양한 노화 흔적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한 Blue PDRN™이 있다. 특히 한 가지 제품으로 반짝이는 윤기를 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스크, 앰플, 크림을 각각 다른 역할로 설계해 피부 컨디션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홈 에스테틱 프로그램을 완성했다.



Step 1

먼저, 피부 바탕부터 매끈하게

에스테틱 리페어 프로그램의 첫 단계는 피부 컨디션을 정돈하는 과정이다. 피부에 쌓인 노폐물과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 피부결을 매끈하게 정돈하고, 다음 단계의 집중 리페어 케어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피부 바탕을 준비해준다.

효소 캡슐™과 Blue PDRN™을 담아 피부결과 피부 톤을 매끈하게 정돈하는 크리미한 워시오프 마스크. **홀리추얼 블루 PDRN 리셋 마스크** 100ml 4만8천원.

*탄력, 장벽 저하 등의 노화 징후



Step 2

한 병에 담은 두 번의 집중 케어

피부 바탕이 정돈되었다면 이제 복합 노화 흔적*을 집중적으로 케어할 차례다. 피부결, 탄력, 주름, 기미, 잡티 등 피부 나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를 관리해 매끈하게 빛나는 결광 피부로 바꿔주는 핵심 리페어 단계다.

고농도 특허 효소가 함유된 1제와 Blue PDRN™ 51%가 함유된 2제를 한 병에 담은 듀얼 포뮬러가 다양한 노화 흔적*을 집중 케어하는 리페어 앰플. **홀리추얼 블루 PDRN 더블 앰플** 45ml 9만5천원.



Step 3

마지막 한 겹까지 탄탄하게

홀리추얼이 제안하는 리추얼의 마지막 단계는 단순한 보습이나 광채를 넘어 복합적인 노화 흔적*을 폭넓게 개선해 리페어 효과를 견고하게 정착시키는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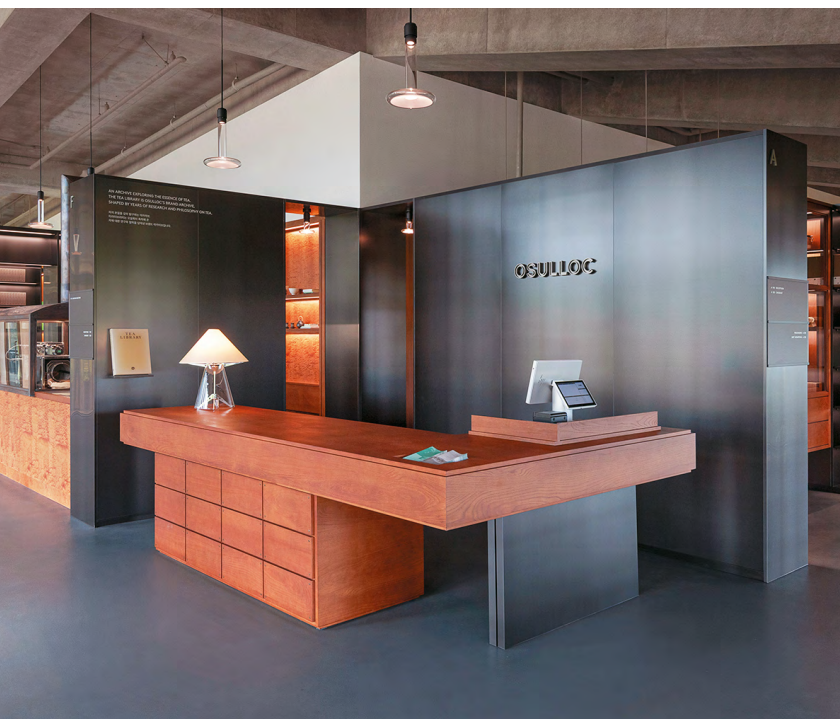
홀리추얼만의 독자 성분 Blue PDRN™과 4배 더 강력한 리페어 시너지를 내는 Blue Beta Glucan™이 함유된 인텐시브 리페어 크림. **홀리추얼 블루 PDRN 리커버리 크림** 50ml 11만5천원.



Tea, From Farm to Cup

차밭에서 시작해 한 잔의 차가 되기까지. 제주에서 차를 천천히 보고, 듣고, 맛보며 여유를 즐기는 새로운 방법.

editor LEE HAE RI



차 한 잔을 제대로 즐기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따뜻하게 우려나는 향을 기다리고, 천천히 맛을 음미하며 잠시 손에 쥔 것을 내려놓는 것.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에서는 그 짧은 여유조차 쉽게 잊곤 하지만, 여행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서두를 이유가 없는 풍경 속에서는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한 잔의 차에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머물다. 차밭이 펼쳐진 제주에서는 그 시간이 조금 더 특별해진다. 눈앞에서 자라는 차잎이 어떤 과정을 거쳐 한 잔의 차가 되는지 알아가는 순간, 차는 단순히 마시는 음료를 넘어 하나의 경험이 된다. 오설록이 제주 한남차밭 티팩토리에 새롭게 문을 연 티라이브러리(Tea Library)는 바로 그 여정을 만날 수 있는 공간. 한남차밭과 티팩토리, 티하우스에 티라이브러리까지 더해지며 차잎의 재배부터 한 잔의 차로 완성되기까지 'Farm-to-Cup'의 과정을 한곳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됐다.

차를 읽는 12개의 서가

이름처럼 도서관을 닮은 티라이브러리에는 12개의 서가가 펼쳐진다. 도서관의 디렉토리에서 착안한 각각의 서가에는 오설록이 40여 년간 쌓아온 역사와 철학부터 원료 재배와 생산 과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까지 차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관심이 가는 서가를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씩 발견하는 재미도 있다. 평소 향과 맛으로만 즐겼던 차의 배경을 알고 나면 익숙했던 한 잔도 조금 다르게 보인다.

제주 차잎이 호지차가 되는 순간

서가를 지나면 이번에는 향으로 차를 경험할 차례. 호지차 로스팅 존에서는 제주에서 생산한 차잎이 실제 로스팅을 거쳐 깊은 향과 풍미를 지닌 호지차로 완성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 이어지는 시음 존에서는 차를 맛볼 수 있고, 전시와 미디어 존에서는 오설록의 브랜드 유산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 티라이브러리에서만 만날 수 있는 전용 제품과 굿즈를 선보이는 제품 존도 마련되어 있어 보는 즐거움에서 맛보고 고르는 재미까지 이어진다.

차밭에서 차 시음까지, 직접 따라가볼 것

이곳을 좀 더 깊이 경험하고 싶다면 도슨트 투어를 눈여겨볼 것. 티라이브러리의 전시 공간을 시작으로 실제 차가 생산되는 티팩토리와 한남차밭 전망대까지 둘러볼 수 있다. 마지막에는 티 마스터와 다양한 차를 시음하며 자신의 취향에 맞는 차를 찾아보는 시간도 이어진다.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는 알기 어려웠던 산지와 제조 과정, 맛의 차이를 직접 경험하고 나면 평소 즐기던 차 한 잔에도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더해진다. 무언가를 많이 하는 대신 한 가지를 충분히 알아가고 즐겨보는 것. 제주에서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여유다. 도슨트 투어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 방법은 추후 오설록 공식 채널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1 모공과 요철을 매끈하게 정돈해 파운데이션이 잘 먹는 피부 바탕을 만들어주는 프라이머. **설화수** 퍼펙팅 베일 프라이머 SPF30/PA++ 35ml 7만5천원. 2 미세한 파우더가 가볍게 밀착돼 모공과 피부결을 매끈하게 정돈해, 깔끔한 베이스를 완성한다. **헤라** 블랙 쿠션 메쉬 파우더 10g 6만원. 3 은은한 핑크빛이 입술 본연의 컬러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촉촉한 윤기를 더해 입술까지 한층 도통해 보인다. **설화수** 윤조립밤 #030 페탈 3g 4만5천원. 4 차분한 라제리 컬러가 피부 속에서 배어 나온 듯 은은한 혈색을 더한다. **헤라** 리플렉션 리퀴드 블러쉬 #422 라제리 7.5g 4만7천원.

매끈한 베이스에 진심 에디터 이주현

메이크업은 컬러보다 피부 바탕이 잘 정돈됐을 때 훨씬 예뻐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프라이머로 모공과 피부결을 정돈한 뒤 촉촉한 리퀴드 블러셔로 혈색을 더하고, 파우더는 번들거림을 잡는 정도로만 사용해요. 완벽하게 매트하기보다 자연스러운 윤기가 남은 매끈한 피부를 좋아하거든요. 메이크업을 가볍게 하는 날에는 핑크빛 립밤 하나로 입술에 생기와 볼륨감만 살려 마무리하고요.”

My Beauty Essentials

메이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베이스부터 환절기 피부를 위한 나이트 케어까지. 두 에디터가 요즘 가장 자주 손이 가는 뷰티 아이템을 골랐다. editor LEE HAE RI



1 미세한 안개처럼 가볍게 분사돼 건조해진 피부에 빠르게 수분과 윤기를 보충한다. **설화수** 윤조엔스미스트 50ml 6만5천원. 2 밤사이 수분과 영양을 채워 다음 날 아침 푸석함 대신 매끈하고 윤기 있는 피부를 만날 수 있는 슬리핑 마스크. **설화수** 여윤팩 120ml 7만원. 3 주름, 탄력, 피부 톤, 윤기, 피부결 등 복합적인 노화 흔적을 폭넓게 관리해 다음 날 한층 탄탄한 피부 컨디션을 기대하게 한다. **아모레퍼시픽** 클리니컬 레스폰스 트리플 샷 크림 50ml 13만5천원.

보습과 나이트 케어에 진심 에디터 권새봄

“환절기에는 피부가 쉽게 건조하고 예민해지는 데다 메이크업도 잘 받지 않아 보습과 나이트 케어에 더 신경 써요. 오후에는 미스트를 수시로 뿌려 부족해진 수분과 윤기를 보충하고, 밤에는 리치한 크림을 충분히 발라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편이죠. 피부가 유난히 푸석한 날에는 슬리핑 마스크를 더하고,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싶으면 LED 마스크까지 사용하는 게 저만의 환절기 루틴이에요.”

HOLITUAL



Blue PDRN
Reset Mask

Protease
Blue PDRN™

100 mL

HYANGJANG

향장

SKIN, BACK in RHYTHM

